

청소년 결 '키다리 아저씨' 역할 27년

불교자비봉사단체 '카루나의 모임'
27년 동안 불우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이들이 있다. 경주지역 불교 봉사단체인 카루나(KARUNA)란 자비(慈悲)의 비(悲)에 해당하는 범어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름처럼 단체는 1988년부터 꾸준히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을 챙기며 봉사행에 앞장서 왔다.

카루나의 모임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물품지원 등을 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회원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일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며 꾸준히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카루나의 모임이 다른 봉사단체들과 구분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십 년 이상 곁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다. 자칫 가정형편을 비관해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도록 인생선배로서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은 17세대. 매일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목요일마다 아이들 집을 방문해 매일 20만원 정도의 학습보조비와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회원들은 빨래부터 청소, 반찬만들기, 크고 작은 집수리를 돕는다. 아이들과 함께 걸레질을 하고 라면도 끓여먹다 보면 자연스레 학교이야기를 하며 일상을 공유한다. 정이 들만큼 든 아이들에게는 아빠, 삼촌, 이모 등의 호칭도 어색하지 않다. 가족 중 누가 아프지, 고민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

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졸업사진 속에는 회원들도 늘 함께다. 회원들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은 봉사가 아닌 인연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물론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시간이 걸려 신뢰를 쌓으면 아이들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회원들 설명이다.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낮고 정확한 음성으로 다정하게 상대에 임한다'는 봉사 수칙을 매번 되새길 만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한류한다.

1988년 창립, 7백명 결식아동 후원

청소·빨래부터 고민상담까지

매월 만남 통해 유대관계 쌓아

기부 트렌드 되면서 후원자 감소

기부가 대중적 사회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자원봉사단체도 늘어난 것은 당연지사. 카루나의 모임 역시 한 때는 회원이 5천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6백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덕분에 기업, 단체 등에서 틈틈이 지원금을 청겨준다. 얼마전 쌀 40포대를 전달해준 불국사도 빼놓을 수 없는 후원처다.

단체는 줄어드는 후원금에만 의존하기 어려워 일일차집을 열기도 하고 지역 축제가 개최되면 체험부스를 진행해 알뜰살뜰 후원금을 적립해간다. 최근에도 차집을 열



카루나의 모임 회원들은 겨울이면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위해 연탄배달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 3백5십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김종훈 사무국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아 어렵다"면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찾아와 봉사활동을 거들 때나 월급을 쪼개 후원금을 보내줄때마다 한명 한명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카루나의 모임을 거쳐간 아이들은 약 7백여명에 달한다.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주고 보살펴준 데 대해 감사해하는 편지도 그만큼 쌓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는 걸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너무 늦게 발견해버린 골육종 때문에 열 다섯 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회원들은 아이의 병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들의 부주의를 탓하며 손수 장사를 치르기도 했다.

온기 나누며 슬픔은 반으로

1988년 경주 삼불사로 소풍은 초등학교때문에 만들어진 카루나의 모임. 삼불사 주지 중수 스님이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이 가운데 소나무에 기댄 채 발로 땅만 차고 있던 아이를 본 것이 계기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스님은 결식 어린이 돕기 및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모임을 발족하고 회원 모집에 나섰다. 아이가 겪었을 소외감, 외로움을 털어내고자 시작했던 카루나의 모임은 아이들 손에 돈 대신 온기를 선물해왔다.

청소년을 위한 봉사가 재능기부 등 문화방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관련 봉사단체도 많아졌지만 카루나의 모임은 처음 방식 그대로 오직하게 아이들 곁에서 수 십년 동안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12번째 학교 완공

10월 29일 쟁카이 금화초등학교... 금화사 1억5천만원 후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라오스에 12번째 교육시설을 건립했다. 지구촌공생회는 10월 29일 라오스 싸이타니구 쟁카이 마을에서 쟁카이 금화초등학교 준공식을 가졌다. 학교건립에는 대전 금화사(주지 일초)가 1억5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8월 말 건평 392㎡(130평) 규모로 학교가 완공됐으며 현재 교실 7칸(유치부, 초교 5개 학년, 교무실)과 화장실 4칸을 구비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쟁카이 금화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라오스 발전의 큰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여한 금화사측에서는 아이들 교복과 가방, 교사 유니폼, 사무용



지난 10월 27일 캄보디아 쟁카이 금화초등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품과 상비약 등 5백여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프라베양프라우 금산사초등학교 증축 준공식도 진행했다.

학교는 2011년 건립됐지만 학생수가 늘어나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새틀게 4칸의 교실을 마련하게 된 금산사초등학교는 11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된다. **배현진 기자**

NGO·복지단체 연간 사업 공모

최대 1천만원 지원...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참조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서는 '2015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 속에서 행복할 자립과 자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단체의 연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1년 이후 5회째 진행되고 있다.

공모사업 지원 기금은 총 1억원이며, 기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NGO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모집분야는 △저소득가정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탈북자 지원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환경 지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분야로 총 4개 영역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며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사업안내: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www.thenan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현진 기자**

송파노인센터, 휠체어 기금 마련 나눔행사

이웃과 함께 걷는 '송파소리길'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10월 25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산책을 위한 휠체어 마련 걷기 행사 '그레 걸자! 송파소리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거동불편 어르신 3백5십여명이 송파소리길을 함께 산보하며 지역 사회에 돌봄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행사로 기획된 이번 걷기대회는 행사 참여권 판매를 통해 휠체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장비마련을 병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송파노인요양센터 뒤편 송파소리길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송파파인타운 6단지까지 돌아오는 약 5km 코스를 걸었다. 행사 후에는 한양여대 치어리더 및 송파복지센터 시니어합창단 공연과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송파노인요양센터 운영지원사찰인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손지영 송파노인요양센터 원장은 "아이들부터 건강한 노인, 아프고 힘든 노인들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년 개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요양서비스와 지역구성원이 서로 소통·공감하는 지역복지사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연금도 가입하고 재단에 기부도

조계종복지재단 후원상품 출시

연금보험 가입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10월 28일 IBK연금보험주식회사와 'IBK연금보험 행복나눔 제휴협약식'을 진행했다.

IBK연금보험은 IBK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국내 최초 연금전문보험사다.

11월 3일부터 판매하는 'IBK행복나눔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기부를 원하는 사회복지단체를 지정하면 납입된 보험료의 0.5%가 적립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1년 단위로 기부되며 가입 후 5년간 지속된다. 고객들은 기부처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0월 28일 IBK연금보험주식회사와 진행한 협약식.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IBK행복나눔연금보험은 판매자에게 사회공헌에 동참한다는 긍지를 심어주고 가입자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주므로 서로에게 좋은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이번 협약이 국내외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많은 단체와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레인보우 새 합창단원 모집

12월 5일까지...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한다.

한국다문화센터(공공대표 무원)는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내에 위치한 레인보우합창단 연습실에서 레인보우합창단의 공개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디션 참가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8~13세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합격자에게는 향후 레인보우합창단 활동자격이 주어진다. 오디션 결과에 따라 대상, 은상, 장려상, 입선에 해당하는 상금이 부여된다.

참가곡은 지정곡 1곡(노래명:몽개구름)과 자유곡 1곡으로 총 2곡이다. 심사기준은 음감, 음정, 박자, 표정, 안

무 및 퍼포먼스 등 5개로 나눠 각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며 총 12명 모집예정이다.

레인보우합창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현재 2개국 35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활동 중이다.

최근까지 G20 정상회의,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아게임 등 굵직한 행사마다 초청돼 민간의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가 신청 기한은 12월 5일까지며 홈페이지(www.cmck.kr)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2)737-0467 **배현진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 2014년 추계 학술대회

모시는 글
삼보에 정례하옵니다.
부처님가르침의 법맥을 이은 나라다 대승불교의 보고인 티벳대장경을 최초로 한글 번역하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와 전 국민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초사업으로 역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국의 사려에서 찾자 국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작업입니다. 사부대중께서 깊은 관심으로 왕림하여서 관심과 지혜로운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봉사는 혼자만 아니라 모두여야 가능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서툰 아이의 중중결을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장 진옥 합장

11월 28, 29일 주요일정

■ 제1부 티벳대장경역경원 현판식 ■ 제2부 학술대회

11월 28일 일정	11월 29일 일정
PM 1:00 · 개회 - 사회 안성두(서울대 철학과 교수) · 환영인사 -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 · 축사 -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계영 총장 · 기조연설 - Geshe Ngawang Samten (티벳학 중앙대학교 총장) 정우 스님(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AM 10:00 · 사회: 김현구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발표: ven. 담마끼띠
주제 1 : 해외에서의 티벳대장경 역경 사례 · 사회: 차상엽(금강대 HK교수) · 발표: Penpa Dorjee (티벳학 중앙대학교 교수) · 특역: 이건준 (인도 델리대학교 불교학과 객원교수) · 발표: Julia C. Stenzel(84000 프로젝트 역경사, 사카펜딕트 번역팀 매니저) · 특역: 한대성	주제 2 : 스리랑카에서의 삼장 보존과 현대화 과정 · 발표: ven. 담마끼띠
주제 3 : 신국역대장경의 제 문제 · 사회: 최종남(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발표: 小川一乘(前大谷大學학장, 西照寺주지) · 특역: 배경아(티벳대장경역경원 객원연구원)	주제 4 : 한국에서의 고려대장경 번역 · 발표: 박종민(동국역경원 역경위원)
PM 7:00 · 저녁 만찬 및 문화 공연 · 카림 뱌베 체링(평화를 노래하는 티벳 가수)와 이리술(국악그룹) 공연	· 회향

티벳대장경역경원

'빛나는 지도자' 제 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가 열립니다.

불기 2558년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빛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부처님 법향을 함께 나누는 빛나는 법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미와 유익함도 함께하는 강습회!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법구경"을 재미있고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간의 계획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 법구경을 가슴에 새겨 빛나는 지도자가 되자

■ 프로그램

- 2015년 법회 프로젝트 (법구경 활용 법회 계획 및 지도자 네트워크) : 교육연구위원회
- 놀면서 배우자!! (팀워크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 전남회(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전문위원)
- 캘리로 전하는 法音 (캘리와 석고 방향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 이수진(신나는세상 공예전문강사)
- 노래로 배우는 부처님 법 (찬불가를 활용한 법회 지도법) : 민선희 (봉은사*선불님성합창단 지휘자)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1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 소 : 국제선센터 지하 1층 교육문화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67)

■ 대 상 : 각 사찰 계층별 지도자, 포교사,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등 100명(선착순 접수)

■ 참 가 비 : 4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5만원)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신청방법 : 다음카페 (http://cafe.daum.burec) 참가신청서 인터넷 접수, 팩스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burec@hanmail.net), Fax(02-738-7863)

■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신청기한 : 11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

■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